

# LUXURY

*May 2014*



## 2014 Luxury Timepiece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선물 129

Garden of Beauty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얼굴, 부처

PIAGET



## 공명의 시간을 담다

요즘처럼 대중이 예술에 대해 관심을 보인 시대가 있을까. 누군가는 오페라에 또 누군가는 그림에, 어떤 누군가는 영화에 몰입해 깊고도 넓게 파고 들어간다. 그러면서 가장 궁금해하는 한 가지. 이런 '예술'을 만들어내는 창작자들, 예술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푸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21세기 컬처크리에이터' 시리즈는 우리 시대 문화계를 대표하는 아이콘들,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 거장의 삶과 예술 세계를 보여주는 기획이다. 건축과 삶의 풍경을 그린 송효상의 <오래된 것들은 다 아름답다>에 이어 두 번째로 사진가 구본창의 이야기를 담은 책 <공명의 시간을 담다>가 출간되었다.

이제는 사진을 당연히 현대미술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사진의 위치는 미미했다. '사진사'를 '사진가'로 만드는 데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구본창이다. 독일에서 유학하며 본격적으로 미술과 사진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사물과 대화하는 방식을 이해한 그는 존재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남기는 작업을 계속해왔다. 그 대상은 때로는 비누였고 한국의 백자였으며 함부르크의 빨래이기도 했고 아름다운 패션 모델이기도, 유명한 배우이기도 했다.

"사진가든 건축가든 음악가든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독의 소중함을 안다. 진공의 시간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 안의 영감을 발견하기 어렵다. 어쩌면 나는 피사체와 그리고 나 자신과 대화하기 위해 사람과의 대화를 끊은 것인지도 모른다..."

상업으로서의 사진, 예술로서의 사진이라는 진부한 구분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린 흔치 않은 사진가로 일하고 경험한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의 사진이 이전과 다르게 보일 것이다. 카메라는 물론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요즘, 사진이 지닌 진정한 매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책. 구본창, 컬처그라퍼.

